



에르메스 메종 아티스틱 디렉터,
샤를로트 마코 페레망의
사물과 교감하는 집

자연과 하나 된 침대에서 진정한 휴식
해스텐스

2023 디자인 축제 리포트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
스페인 페리아 아비타트 발렌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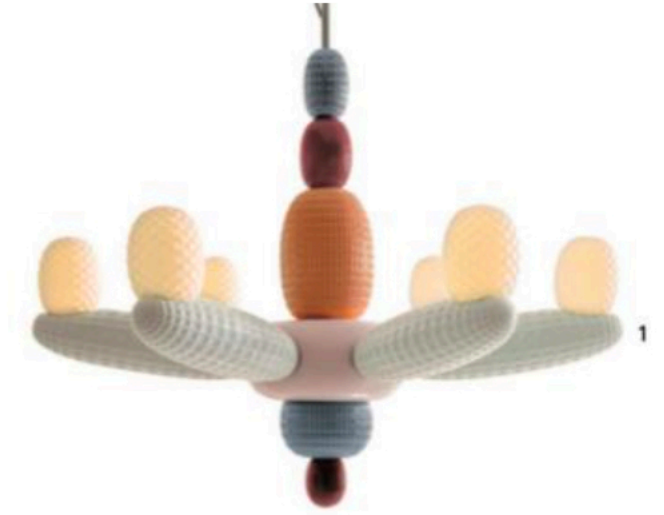
취향과 공간의 점점

오브제, 나만의 컬렉션을 품다

2023
NOVEMBER
WWW.CASA.CO.KR
ISSN 2982-592X
9 772482 592002

수작업으로 탄생한 디테일의 회귀

일상에 편리함을 높이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대조적으로 정교한 미감을 살린 모던한 디자인의 수공예 가구와 조명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곡선과 미적인 감각을 더한 디자인에 소재의 다양함으로 변주를 주었다. 도자기, 나무, 대리석, 천연 가죽 등 자연의 물성을 조합해 색다름을 보여 주고, 그 효과를 배가시킨 것이다. 수제 조명 브랜드 '루시페르 램프(LFZ Lamps)'는 영국 디자이너인 '보도 스펠라인(Bodo Sperlein)'과 협업해 아치 디자인을 입체적인 조형미로 풀어낸 '오스카(Osca)' 컬렉션과 새의 깃털을 1920년대 아르데코 스타일로 표현한 '볼리에르(Voliere)' 상들리에를 선보였다. 메탈과 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천연 목재 베니어의 조합으로 모던한 느낌에 우아함이 한층 배가되었다. 스페인 대표 도자기 브랜드 '아드로(Lladro)'는 창립 70주년을 맞아해 공예와 디자인을 넘나드는 수작업 조명에 장인 정신을 쏟아부었다. 일본 디자이너인 '나오토 후카사와(Naoto Fukasawa)'와 함께 백목련의 봉오리와 활짝 핀 형상을 그대로 본떠 디자인한 상들리에 스튜디오 조명인 '모쿠렌(Mokuren)'을, 이탈리아 무라노섬의 '니체토 스튜디오(Nichetto Studio)'와 다양한 컬러의 풍선을 연상케 하는 '소프트 블론(Soft Blown)' 컬렉션을 선보여 주목을 끌었다. 아웃도어 가구 브랜드 '엑스포림(Expormim)'에서는 25년 전 라탄 소재로 만들었던 수제 '라팔라(Lapala)' 의자를 자연이 주는 편안함은 그대로 간직한 채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켰다. 철제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스페인 가구 브랜드 '알렉산드라(Alexandra)'는 발렌시아 디자인 스튜디오인 '수뭉스튜디오(Summstudio)'와 협업으로 아프리카 사막 한 가운데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탐험가의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스웨이드 소재에 여행 가방의 버클 디자인을 더해 완성한 '둔(Dune)' 침대를 선보였다.



- 1, 2 아드로가 니체토 스튜디오와 상들리에와 테이블 램프로 구성된 '소프트 블론' 컬렉션을 선보였다. 풍선 아트를 연상시키는 유쾌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 3 보도 스펠라인이 입체적인 아치 디자인의 메탈과 천연 목재 베니어 조합으로 세련되게 풀어낸 루시페르 램프의 '오스카' 컬렉션은 공간에 우아함을 배가한다.
- 4 나오토 후카사와가 디자인한 아드로의 '모쿠렌' 상들리에에는 도자기로 정교하게 빛은 백목련을 통해 빛을 퍼뜨려 황홀함을 자아냈다.
- 5 알렉산드라가 수뭉스튜디오와 디자인한 '둔' 침대는 스웨이드 소재로 완성해 사막의 고운 모래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듯한 편안함을 부각했다.

